

"단 한명의 구조조정도 용납할 수 없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보도자료

·위원장 : 박노균 / ·주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9-6 대동빌딩 5층 / 2009년 8월 11일

·받는 이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 철도/발전/가스 공동투쟁 결의대회

·문 의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02-3456-8157), 실장(010-8489-3571)

공공기관선진화 정책 분쇄, 탈법적 노사개입 저지 철도/발전/가스 공동투쟁 결의대회

- 11일 오후 3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조 가스공사지부는 이명박 정권의 '공공기관 선진화'란 미명하에 탈법적인 노사개입 통한 노동탄압 실태와 민영화·시장화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실태를 규탄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3개 노동조합이 힘차게 진행하기로 결의하는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8월 11일 오후 3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갖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3개 노동조합 300여명이 참석하며 공공기관 선진화 분쇄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말살, 공공기관 민영화·시장화 저지 등 이명박 정권의 노동자민중 죽이기 정책에 맞서 부족인원, 신규사업인원 충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는 집회가 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철도/발전/가스 공동투쟁 결의대회 안내

일시 : 2009년 8월 11일 오후 3시

장소 :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2009. 8. 11

민주노총 / 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가스공사지부